

# ‘불굴의 투혼’ 선보인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가 워너

[아시안게임 결산]

## 한국, 일본에 밀려 종합 3위로 대회마감 전통 효자종목 태권도 선전...양궁 아쉬워

대한민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에 그쳤다. 6회 연속 준우승에 도전했지만, 일본에 2위를 내줬다. 지난달 18일 막을 올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2일 밤 폐회식을 끝으로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명승부도 아쉬운 경기도 많았다. 목표를 달성한 선수는 기뻐했고, 뜻을 이루지 못한 선수는 좌절의 눈물을 흘렸다.

대회는 끝나지만 태극전사들이 쉴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각급 세계선수권대회, 2020 도쿄올림픽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위해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한국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부터 중국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지켜왔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일본에 잠시 3위를 내줬을 뿐 항상 2위를 고수했다. 최근 5회 연속 종합 2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수 년 전부터 체육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했다. 한국과 중국이 강세인 종목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육상과 수영 등 기초

종목에서 선전하며 한국을 뛰어넘었다.

한국의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목표는 66개였다. 목표대로 금메달을 땀다면 2위 수성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금메달 49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70개에 그쳤다. 금메달 49개는 1990년 베이징 대회(금 54, 은 54, 동 75)보다도 적다. 한국은 최근 2개 대회 연속 70개가 넘는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반면 일본은 금메달 74개, 은메달 56개, 동메달 74개를 획득했다.

한국은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태권도에서 선전했다. 이대훈은 아시안 게임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김태훈과 이다빈은 2연패를 이룩하면서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한국 태권도의 목표는 금메달 7개 이상이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가져왔다.

펜싱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박상영과 남현희, 김지연은 아쉽게도 목표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구본길은 3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전희숙과 강영미가 금메달



2일(현지시각)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경기대회' 선수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따냈고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휩쓸었다. 은퇴를 언급한 '켄싱의 전설' 남현희는 동메달을 획득해 국제대회 99번째 메달을 손에 쥐었다.

유도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개가 나왔다. 정보경과 안바음이 명승부를 펼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광동환과 김성민도 금맥을 쫓았다. 정보경과 김성민은 부상 투혼을 펼치면서 유도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사이클은 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사이클 사상 첫 4관왕이

배출했다. 나이름은 개인도로, 도로독주, 단체추방 매디슨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기계체조와 수영에서는 향후 한국 체육을 이끌 스타가 탄생했다. 김한솔은 금, 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루운동에서 금메달을 딴 김한솔은 도미에서 은메달을 땀.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마무리 동작을 하지 않아 감점을 받았다. 결국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쳤다. 김한솔은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이끌었다. '도미의 신' 여흥철의 딸 여서정은 도미에서 금메달의 쾌거를 이

뤘다. 마루운동, 평균대에서 두각을 나타내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여흥철 교수(경희대)는 "김한솔과 여서정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평가했다.

수영 김서영은 36년 만에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아직 진화하고 있는 김서영은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구기종목에서는 야구와 축구가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 100% 프로야구 선수로 구성된 야

구대표팀은 예선 첫 경기에서 대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이후 5전 전승을 기록하며 3회 연속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축구 역시 말레이시아에 패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승부욕을 불태우며 결승에 오른 후 일본을 연장전에서 제압해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은 결승전에서 아시아 최강 중국에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카누 여자 용선 500m에서 금메달, 여자 용선 200m와 남자 용선 1000m에서 동메달이 나왔다.

한국의 전통적인 금발인 양궁에서는 목표 이하의 금메달이 나왔다.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8종목에서 내심 싸움 이까지 노렸지만, 세계 양궁은 이미 한국의 텃밭까지 추격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세계 최강이지만, 선수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양궁 선수들은 기자회견에서 최인처럼 '죄송하다'란 말만 되풀이했다. '양궁=금메달'이란 주위의 기대가 선수들을 짓눌렀다. 태권도 역시 마찬가지다. 선수들은 태권도 중 주국이나가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했다.

금메달을 못 땀다고 패자는 아니다. 좌절할 이유도 없다. 잘 싸운 패배는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다. 한국 체육의 미래이자 희망인 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한다.

뉴시스

## 남북 단일팀, 스포츠 본질 훼손은 경계해야 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준결승 남북단일팀과 대만의 경기가 열린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GBK) 이스타라경기장에서 남북합동 응원단이 단일팀을 응원하고 있다.

### 국제종합대회서 첫 메달 수확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한국과 북한, 남북 체육사에 큰 획을 그은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제종합대회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흘러 카누, 조정, 여자농구 3종목에서 다시 남북이 힘을 합쳤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첫 메달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카누 용선 단일팀은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에서 처음으로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있고, 한반도가 가장 위에 걸렸다. 애국가를 대신해 이리랑이 울려 퍼

졌다. 남북이 하나가 된 순간이다. 용선 단일팀은 여자 200m와 남자 1000m에서도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고 있는 박지수까지 합류한 여자농구는 결승에서 중국에 65-71로 아쉽게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큰 감동을 줬다.

아시아 득점왕 류숙영과 박지수의 호흡은 단연 돋보였다. 경기력 관점에서 보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살린 찰떡궁합으로 단일팀 구성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했다.

관중석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돼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단일팀이 아닌 한국 혹은 북한의 경기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불과 2년 전 2016 리우올림픽만 해도 많은 북한 선수들이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눈길조차 주지 않

았다. 몇몇 선수들이 응했지만 형식적인 대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수는 물론 감독, 코치들도 삼삼하게 대화할 주고받는 장면이 많았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단일팀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향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핸드볼의 경우, 단일팀 구성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지는 내용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밖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전국체육대회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에 북한의 출전도 제안했다.

그러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구성 과정에서 나타났듯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대의를 이유로 일방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돌아간다.

대회 초반에 나온 핸드볼 단일팀 구성의 경우, 한국과 북한의 실력차가 너무 커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 여자 핸드볼은 아시안게임 2연패, 통산 7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아에 적수가 없다. 유럽 국가들과 대등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남북 평화무도 조성, 협력 등 대외의 간조해선 안 된다. 단일팀 구성이 전력 약화를 부른다면 체육계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도쿄올림픽에서도 단일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지역예산이 시작된다.

한국 선수들이 피랍 우려를 감내하고 북한 선수들이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스포츠계 목소리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